

2016 유엔마약특별총회 국제회의의 참관기

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영기획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영구 이사장과 경영기획팀 이한덕 팀장, 김도균 담당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16 유엔 마약특별총회(UNGASS 2016)'에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는 세계 각 유엔회원국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 및 비정부기구(NGO)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계 마약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구성은 각국의 마약정책을 발표하는 General Assembly, 특정 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Round Table, 그리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Side Events의 세 가지 형식으로 3일간 진행됐다.

전영구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방문단은 각국의 대표단, NGO 및 시민사회 위원들과 접촉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소개하고, 마약문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각 행사에 참석하여 변화하는 세계 마약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6 유엔마약특별총회를 통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개인과 일반 대중의 건강관련 사회적 문제, 안전문제 및 복지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타 마약관련 범죄를 재확인하고 마약류 남용을 예방·치료하고, 마약류의 불법 재배, 생산, 제조 및 밀거래 퇴치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약류문제는 인류의 건강, 안전과 복지에 계속해서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엄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물남용 없는 사회를 적극 촉진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총회에서 사람을 우선하는(Putting people first) 마약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마약류라는 물질보다는 사람에 집중하는 마약정책과 프로그램이 대세가 될 것으로 느꼈다.

중독은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며 예방, 조기개입, 치료, 보호관리,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 조치 등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요 감축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마약을 주사로 사용하는 문제 사용자들의 HIV/AIDS, C형 및 B형 간염 등 감염성 질병의 확산에 따라 harm reduction 정책

의 수용까지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포르투갈의 마약정책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 마약류의 개인적 사용 및 소량소지의 비범죄화 정책과 이에 따른 예방, 치료재활, 설득 및 harm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책임 및 책임공유, 통합되고 다학제적이며 상호 강화되고 균형 잡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통합되고 균형 잡힌 접근법의 한 부분으로, 인류의 건강, 안전과 복지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를 적절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WHO, UNODC 등에서 확립한 예방 및 치료관련 기준을 우리의 실정에 접목시켜 실행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약문제를 성공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원에서 특히 건강, 교육, 사법과 법집행분야에서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마약문제를 퇴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이 중요함도 확인했다.

외국의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에서는 예방 및 치료재활 등 수요감축부문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국가 및 국제마약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마약위원회(CND) 회의, IFNGO 총회 참여 등 국제적 연대를 통한 수요 감축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마약류의 수요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하는 전문기관으로의 역량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유엔마약특별총회(UNGASS)란?

공식 명칭 및 주제

2016 유엔마약특별총회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the World Drug Problem, UNGASS 2016)

“2019년 목표 달성-세계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Achieving the 2019 Goals – A Better Tomorrow for the World’s Youth)

개최 배경

회원국들의 요구로 특별 이슈에 대한 UN특별총회(UNGASS)를 개최

UN의 마약관련 특별 활동 내용

- 2016 유엔마약특별총회
- 2014 공동각료성명서(Joint Ministerial Statement)
- 2009 정치선언과 행동계획(Political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 1998 세계마약문제 퇴치를 위한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countering the world drug problem)
- 1998 유엔마약특별총회(UN General Assembly Twentieth Special Session)
- 1990 정치선언과 행동 프로그램(Politica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 1987 약물남용 및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회의의 선언(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2016년 유엔마약특별총회의 의의

- 2009년 “세계 마약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통합되고 균형 잡힌 전략을 향한 국제협력에 대한 정치선언과 행동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시금석
- 2009년 정치선언과 행동계획은 2019년까지 달성한 목표뿐 아니라 회원국들이 취할 행동을 정의